

客難》雖欲盡節効情, 安知前後。

【效足 壴季】 힘을 다함. 능력을 다함. /三國魏, 曹植《與陳琳書》驥驥不常一步, 應良御而效足. /晉, 陸機《漢高祖功臣頌》萬邦宅心, 駿民效足.

【效地 壴지】 땅을 바침. 《戰國策, 趙策 3》魏因富丁且合於秦, 趙恐, 請效地於魏而聽薛公.

【效志 壴지】 마음을 살피어 반성함. 《楚辭, 九章, 懷沙》撫情効志兮, 冤屈而自抑. 〈王逸注〉効, 猶覈也. /漢, 馬融《長笛賦》是故可以通靈感物, 寫神喻意, 致誠効志, 率作興事.

【效祉 壴지】 복(福) 받을 징조를 드리냄. 《南史, 梁紀上, 武帝 上》而畧緯呈祥, 川岳効祉, 代終之符既顯, 革運之期已萃. /唐, 劉允濟《天賦》發星辰而效祉, 雜烟雲以降祥.

【效職 壴직】 직무를 다함. /唐, 韓愈《賀雨表》龍神效職, 雷雨應期.

【效徵 壴징】 징조를 드리냄. 《南史, 宋紀, 武帝》甲子, 遣使奉策曰……至於上天垂象, 四靈效徵, 圖讖之文既明, 人神之望已改.

【效捷 壴첩】 공을 세워 승리를 바침. 《晉書, 劉毅諸葛長民等傳論》追舊而慟感時人, 率義而響震勍敵, 因機效捷, 處死不懼. 《宋書, 沈慶之傳》或受命元帥, 一戰寧亂, 或稟奇軍統, 協規効捷, 偏師奉律, 勢振東南.

【效忠 壴충】 충성을 다함. /漢, 王逸《九思, 守志》伊我后兮不聽, 焉陳誠兮効忠. 《新唐書, 陸贊傳》接不以禮則其徇義輕, 撫不以情則其效忠薄.

【效驗 壴험】 성과. 壴斗. /漢, 應劭《風俗通》怪神, 鮑君神》怪其如是, 大以爲神, 轉相告語, 治病求福, 多有效驗. /宋, 孔平仲《孔氏談苑, 元旦占候》占亦如此, 云絕有效驗.

【效好 壴호】 좋은 일을 본받음. 《紅樓夢, 78회》不過使他自己知道, 越發小心效好之意, 且沒有明說.

【效獲 壴획】 사냥에서 잡은 포획물. /漢, 張衡《西京賦》逞欲畋斂, 效獲麌麋. /晉, 左思《吳都賦》嶰澗閭, 岡岫童, 豐果滿, 效獲衆. /唐, 李白《大獵賦》觀壯士之効獲, 顧三軍而欣然.

【效勳 壴훈】 힘을 다하여 공훈을 세움. /唐, 陸贊《冬至聽樂賦》聖應天而效勳.

7 故

敢과 같다. 《玉篇, 支部》敢, 敢果也. 故, 篆文. 出說文.

8 教

敎의 속자. 《龍龕手鑑, 支部》敎, 教俗字.

	甲 文		金 文		小 篆		小 篆
前5·20·2	散	盤	說文古文	說文	敎		

□ 正 效 ④ 《廣韻》 古孝切 jiào

□ 正 着 ④ 《廣韻》 古着切 jiāo

《說文, 教部》教, 上所施下所效也. 从支, 从孝. 孝, 古文敎, 疋, 亦古文敎. 〈徐鍇繫傳〉支所執以敎道人也……言……

以言敎之. 〈段玉裁注〉上施, 故从支, 下效, 故从孝.

▣ ●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육하다. /唐, 玄應《一切經音義 2》三蒼曰, 教, 誨也. 《禮記, 學記》敎也者, 長善而救其失者也. 《孟子, 梁惠王 上》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唐, 韓愈《祭十二郎文》當求數頃之田於伊潁之上, 以待餘年. 敎吾子與汝子幸其成, 長吾女與汝女待其嫁, 如此而已. ● 지도하다. 교도(敎導)하다. 가르치어 이끌다. /漢, 司馬遷《報任少卿書》敎以順於接物, 推賢進士爲務. /宋, 王安石《答司馬諫議書》昨日蒙敎, 竊以爲與君實游處相好之日久, 而議事每不合, 所操之術多異故也. /清, 蒲松齡《聊齋志異, 促織》成反復自念, 得無敎我獵蟲所耶. ● 알리다. 고소하다. 말하다. 《廣韻, 效韻》敎, 語也. 《呂氏春秋, 貴公》此大事也, 聞仲父之敎寡人也. 〈高誘注〉敎, 猶告也. /唐, 韓愈《柳州羅池廟碑》於是老少相敎語, 莫違侯令. ● 훈련하다. 연습하다. 단련하다. 《論語, 子路》以不敎民戰, 是謂棄之. 《呂氏春秋, 簡選》統率士民, 欲其敎也. 〈高誘注〉敎, 習也. ● 정교(政敎). 立斗. 《商君書, 更法》前世不同敎, 何古之法. /唐, 韓愈《原道》今也, 舉夷狄之法, 而加之先王之敎之上, 幾何其不胥而爲夷也. /清, 紀昀《閱微草堂筆記, 濂陽消夏錄 2》聖人之立敎, 欲人爲善而已. ● 문체(文體)의 하나. 관청이나 상사(上司)의 교령(敎令). 고유(告諭)를 이른다. 《玉篇, 支部》敎, 敎令也. 《荀子, 大略》以其敎出畢行. 〈楊倞注〉敎, 謂戒令. /三國魏, 曹操《與王修書》故與君敎. /南朝梁, 任昉《文章緣起, 敎》漢京兆尹王尊出敎告屬縣. ● 종교. 《新唐書, 后妃傳上, 文德長孫皇后》佛·老異方敎耳. 《雲笈七籤 3》上古無敎, 敎自三皇五帝以來有矣. /元, 李翀《日聞錄》敎一也, 亦分爲三, 曰天台敎, 曰賢首敎, 曰華嚴敎. ● 어떤 학설이나 학파. /漢, 鄭玄《六藝論》慮義作十言之敎, 曰乾·坤·震·巽·坎·離·艮·兌·消·息, 無文字, 謂之易. /唐, 封演《封氏聞見記, 道敎》其後學道·學儒·學墨諸家, 分門各爲一敎. ● 본받다. 본뜨다. 모방하다. 敎와 통용. 《廣雅, 釋詁 3》敎, 敎也. 《廣韻, 效韻》敎, 法也. 《韓非子, 難勢》堯敎於隸屬而民不聽, 至於南面而王天下, 令則行, 禁則止. 〈陳奇猷集釋〉敎, 借爲敎……堯敎於隸屬而民不聽, 謂堯與隸屬相仿則民不聽其令也. ● 길흉(吉凶)을 점칠 때에 쓰는 도구. 玳와 통용. /南朝梁, 宗懷《荆楚歲時記》擲敎於社神, 以占來歲豐儉. 或折竹以卜. 敎以桐爲之, 形如小蛤. 《演繁露, 卜敎(宋, 程大昌)》·《石林燕語 1(宋, 葉夢得)》● 비교하다. 견주다. 較와 통용. 《宣和遺事, 前集》那人眉勢敎大. ● 성(姓). 《萬姓統譜, 效韻》敎, 見姓苑. 本朝敎輔直, 永年人, 弘治中山西稷山縣丞. ●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傳授)하다. 전하여 주다. 가르쳐 전하다. 《左傳, 襄公31年》敎其不知, 而恤其不足. /漢, 王充《論衡, 講告》太伯敎吳冠帶, 孰與隨從其俗與之俱僕也. 《玉臺新詠, 古詩, 爲焦仲卿妻作》十三敎汝織, 十四能裁衣. ● ……에게 ……하게 하다. ……하도록 시키다. 《集韻, 交韻》敎, 令也. 《書, 阜陶謨》無敎逸欲有邦, 竝就業業, 一日二日萬幾. 《左傳, 襄公26年》通吳於晉, 敎吳叛楚. 《墨子, 非儒 下》勸下亂上, 敎臣殺君, 非賢人之行也. 《史記, 淮陰侯傳》若敎韓信反, 何寃. ● 주다. /唐, 李賀《大堤曲》青雲敎綰頭上髻, 明月與作耳邊璫. 〈張相注〉此敎字與與字互文, 敎綰, 猶云給綰也. /宋, 陸游《瑞鶴仙詞》侍歸來, 先指花梢敎看, 却把心期細問. 《詩詞曲語辭匯釋 1》● ……할 수 있다. /宋, 晏幾道《虞美人詞 3》羅衣著破前香在; 舊意誰敎改. 〈張相注〉此敎字爲能義, 誰敎, 猶云那能也. /宋, 劉鎮《感皇恩, 壽趙路公八十詞》好景良辰, 滿堂和氣, 唱箇新詞管敎美. 《詩詞曲語辭匯釋 1》

…하게 되다. 得과 같다. /宋, 柳永《集賢賓詞》爭似和鳴偕老, 免教斂翠啼紅. /宋, 周邦彥《醉桃源詞》若教隨馬逐郎行, 不辭多少程. 〈張相注〉若教, 若得也. 《詩詞曲語辭滙釋 1》●줄어들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敦煌變文集, 維摩詰經講經文》我也深知你見解, 酣度你根幾(基), 與維摩不教些些, 為甚如今謙退. 〈蔣禮鴻通釋〉這是如來說光嚴童子的見解和根基不比維摩差, 或不減於維摩. ●병이 낫다. 《敦煌變文集, 父母恩重經講經文》女男得病阿娘憂, 未教終須血淚流. 〈蔣禮鴻通釋〉未教的教和病交的交, 都是病愈的意思.

●…에게 …하다. …에 의하여 …하다. /宋, 辛棄疾《臨江仙, 又再用圓字韻》窄樣金杯教換了, 房櫳試聽珊瑚. /明, 朱有燉《黑旋風仗義疏財》狂客被歌酒迷, 好花教風雨傭.

【教諫 교간】 가르치어 간함. 또는 교도(敎導)와 규간(規諫). 《孔子家語, 郊問》卜之日, 王親立于澤宮以聽誓命, 受教諫之義也. /宋, 葉適《黃君墓誌銘》遇後生有教諫, 亦諷道宛轉, 不令失色詞.

【教綱 교강】 교화의 강령. 《景德傳燈錄》汾州無業師云, 先賢古德, 穎學高人, 博達古今, 洞明教綱. ●이름.

【教經堂 교경당】 청(淸) 서서수(徐書受)의 서실(書室)

【教戒 교계】 교도(敎導)와 훈계. 가르침과 타이름. 敎誡. 敎勒. 《吳子, 治兵》故用兵之法, 敎戒爲先. /唐, 薛用弱《集異記補編, 趙操》屢加教戒, 終莫改悔.

【教誠 교계】 =敎戒. /漢, 應劭《風俗通, 怪神, 世間亡者多有見神》孫兒婦女以次教誠. 《明史, 蘭芳傳》芳所治事, 暮必告母. 有不當, 輒加教誠.

【敎告 교고】 가르치어 이끌어 줌. 가르치고 일깨움. 《書, 多方》我惟時其敎告之. /明, 王守仁《傳習錄, 中》敎人以致知明德, 而戒其卽物窮理, 誠使昏闇之士, 深居端坐, 不聞敎告, 遂能至于知致而德明乎.

【敎科書 교과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 /淸, 皮錫瑞《經學歷史, 經學開闢時代》故孔子爲萬世師表, 六經卽萬世敎科書.

【敎官 교관】 ●교화를 맡은 관원. 《周禮, 地官, 司徒》乃立地官司徒, 使帥其屬而掌邦敎, 以佐王安擾邦國. 敎官之屬, 大司徒卿一人, 小司徒中大夫二人. 〈賈公彥疏〉自此以下至稟人, 摠六十官, 皆是敎官之屬. ●학교를 관장하는 관원. 원·명(元明)시대에 부학(府學)에는 교수(教授), 주학(州學)에는 학정(學正), 현학(縣學)에는 교유(敎諭)·훈도(訓導)를 두어 이들이 각 학교에 속한 생원(生員)들의 교육을 관장하였는데, 이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이다. 일명 교관(校官)·학관(學官). /宋, 陸游《老學庵筆記 4》張文潛三子秬·秸·和, 皆中進士第. 秢秸在陳死于兵, 和爲陝府敎官. /淸, 俞樾《茶香室續鈔, 知縣充本省同考》明初各省鄉試同考, 聘敎官不足, 則聘外省之知縣推官. 《宋史, 職官志》·《日知錄, 科舉, 敎官》●군대나 군사 학교에서 교육을 맡은 군인.

【敎觀 교관】 團교상(敎相)과 관심(觀心)의 두 문(門). 교상은 이론이고 관심은 실천의 뜻이다. 《止觀大意》略述敎觀門戶大概, 今家敎門, 以龍樹爲始祖, 慧文但列內觀視聽而已.

【敎壞 교괴】 ●못되게 가르침. /淸, 孔尚任《桃花扇, 媚座》這都是侯朝宗教壞的.

【敎軍 교군】 태평천국(太平天國) 때에 백련교(白蓮敎)가 거느리던 귀주(貴州)의 농민군. ⇒號軍.

【敎勸 교권】 가르치고 타이름. /唐, 杜牧《唐故江西觀察使武陽公韋公遺愛碑》廣狹俗所未習, 敎勸成之.

【敎禁 교금】 교화와 금령. 《宋書, 蔡廓傳》貞一以閑其

邪, 敎禁以檢其慢. /唐, 韓愈《柳子厚墓誌銘》因其土俗, 爲設敎禁, 州人順賴.

【敎期 교기】 시기를 알게 가르쳐 줌. 《淮南子, 要略》時則者……發施令, 以時敎期, 使君人者知所以從事.

【敎器 교기】 교습과 병기. 《管子, 兵法》敎器備利.

【敎喫 교끽】 먹게 함. /朝鮮《漢清文鑑 12, 食物, 飲食》不敎喫, 먹이지 아니다.

【敎猱升木 교노승목】 원숭이에게 나무타기를 가르침. 못된 사람을 부추겨 악한 짓을 하게 함을 비유한다. 《詩, 小雅, 角弓》母敎猱升木, 如塗塗附. 〈毛傳〉猱, 猴屬, 塗, 泥, 附, 著也. 〈鄭玄箋〉猱之性善登木, 若敎使, 其爲之必也. /淸, 陳天華《論中國宜改創民主政體》今以政府爲不可少, 干涉爲不可無也, 彼乃變易面目, 陰濟其私, 是無異敎猱升木, 助桀爲虐也.

【敎尼 교니】 교화 사업이 정체됨. /宋, 李覲《袁州州學記》倡而不和, 敎尼不行.

【敎達 교달】 가르치어 이끌. 《後漢書, 馬融傳》司徒勒卒, 司馬平行, 車攻馬同, 敎達戒通.

【敎答 교답】 가르쳐 답을 해줌. 답하여 가르쳐 줌. /宋, 王安石《上田正言第一書》則人之疑, 不解自判安. 惟執事念之. 如其不然, 願賜敎答. 不宣.

【敎當 교당】 남을 부추겨 못된 일을 하게 함. /宋, 柳永《擊梧桐詞》近日書來, 寒暄而已, 苦沒忉忉言語. 便認得, 聽人敎當, 擬把前言輕負. 《古今小說 12》近日重來, 空房而已, 苦沒叨叨言語. 便認得聽人敎當, 擬把前言輕負.

【敎德 교덕】 교훈과 덕화(德化). 《漢書, 禮樂志》大莫大成敎德, 長無長被無極.

【敎道 교도】 =敎導의 ●. 《禮記, 月令》[仲冬之月]山林藪澤, 有能取蔬食·田獵禽獸者, 野虞敎道之. 《漢書, 鄭崇傳》朕幼而孤, 皇太太后躬自養育, 免于襁褓, 敎道以禮, 至於成人, 惠澤茂焉. 〈顏師古注〉道讀曰導.

【敎導 교도】 ●가르치어 이끌어줌. 교육하여 지도함. 敎道. 《國語, 晉語 2》杜原款將死, 使小臣圍告于申生, 曰, 款也不才, 寡智不敏, 不能敎導, 以至于死. 《後漢書, 賀融傳》臣融年五十三. 有子年十五, 質性頑鈍. 臣融朝夕敎導以經蓾, 不得令觀天文, 見識記. ●지시함. 지도함. 《警世通言, 沉太守斷死孩兒》支助道, 你既不肯引我去, 我敎導你一個法兒, 作成你自去上手何如. ●선동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함. 남을 부추김. /唐, 李德裕《論朝廷事體狀》今韋宏質受人敎導, 輒獻封章, 則是賤人圖柄臣矣. 《古今小說, 滬大尹鬼斷家私》必是平昔間與他妻子有奸, 趙裁貪你東西, 知情故縱. 以後想做長久夫妻, 便謀死了趙裁. 却又敎導那婦人告狀, 燕在成大身上.

【敎督 교독】 교도(敎導)하고 독촉함. 《漢書, 車千秋傳》今光(霍光)治內, 君侯治外, 宜有以敎督, 使光母負天下. /宋, 王安石《謝王供奉啓》敢圖恩私, 先賜敎督, 感竦之極, 敷言曷殫.

【敎讀 교독】 ●글을 가르침. 공부를 가르침. /淸, 吳敏樹《程日新先生家傳》主人高其義, 歲增其奉, 學徒益進, 卒以敎讀. ●선생. 교사. /明, 王守仁《傳習錄, 中》故特叮嚀以告爾諸敎讀, 其務體吾意, 永以爲訓.

【敎頭 교두】 ●송대(宋代)에 군대에서 무예를 가르치던 요원. 《宋史, 兵志 6》[元豐]二年十一月, 始立府界集敎大保長法……凡禁軍敎頭二百七十, 都敎頭三十, 使臣十. 《水滸傳, 7回》這官人是八十萬禁軍槍棒敎頭林武師, 名喚林沖. ●가무·기예를 전수하는 선생. /宋, 王珪《宮詞 37》蜀錦地

衣呈隊舞，教頭先出拜君王。

【敎練 교련】 가르쳐 단련시킴. 곧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숙달하도록 교도하고 훈련시킴. /三國蜀, 諸葛亮《心書, 習練》千人可敎萬人, 萬人可敎三軍, 然後敎練而敵可勝矣. /元, 佚名氏《博望燒屯, 4折》今有曹丞相, 將我取到魏地, 敎練三軍, 拜爲軍師之職.

【敎練使 교련사】 당대(唐代)에 군사 훈련을 맡은 벼슬. /宋, 高承《事物紀原, 律令刑罰部, 敎練》唐會要曰, 大中六年五月, 勅天下軍府, 有兵馬處, 且選會兵法能弓馬人, 充敎練使.

【敎令 교령】 ①교화. 또는 명령. 《詩, 小雅, 隅桑》既見君子, 德音孔膠. 〈鄭玄箋〉君子在位, 民附仰之, 其敎令之行, 甚堅固也. 《晏子春秋, 問上 18》景公問晏子曰, 明王之敎民何若. 晏子對曰, 明其敎令. ②신앙·절기·관습 등에 따라 꺼리어 금하는 일. 《史記, 太史公自序》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敎令, 順之者昌, 逆之者不死則亡, 未必然也, 故曰使人拘而多畏. 〈裴駟集解〉八位, 八卦位也. 十二度, 十二次也. 二十四節, 就中氣也. 各有禁忌, 謂日月也. ③문체(文體)의 하나. 《後漢書, 孔融傳》所著詩·頌·碑文·論議·六言·策文·表·檄·敎令·書記凡二十五篇.

【敎令者 교령자】 남을 사주하거나 교사(敎唆)하는 사람. 《明律, 刑律, 人命, 造畜蠱毒殺人》凡造畜蠱毒堪以殺人及敎令者斬, 造畜者財產入官, 妻子及同居家口, 雖不知情並流二千里安置, 若以蠱毒毒同居人, 其被毒之人父母·妻妾·子孫, 不知造毒情者, 不在遠流之限, 若里長知而不舉者各杖一百, 不知者不坐, 告獲者官給賞銀二十兩.

【敎勒 교勒】 =敎戒. 《後漢書, 馬廖傳》廖性寬緩, 不能敎勒子孫.

【敎理 교리】 ①교화하는 이치. 《隋書, 經籍志 1》其舊錄所取, 文義淺俗, 無益敎理者, 幷刪去之. ②종교상의 가르침. 곧 종교상의 원리나 이치.

【敎勉 교면】 가르쳐 지도하고 힘쓰게 함. /唐, 韓愈《答劉秀才論史書》辱問見愛, 敎勉以所宜務, 故不拜賜.

【敎命 교명】 ①상사(上司)가 내리는 명령. 곧 고유(告諭)를 이르는 말. 《晉書, 會稽王道子傳》時有人爲雲中詩以指斥朝廷曰, 相王沈醉, 輕出敎命. 《南史, 徐摛傳》大通初, 王總戎北侵, 以摛兼寧蠻府長史, 參贊戎政, 敎命軍書, 多自摛出. ②지시. 또는 지시함. /明, 方孝孺《與童伯禮書》方從父兄之後, 抒晨夕之哀, 徒奉敎命, 冒以衰服請見, 則人謂我何.

【敎無常師 교무상사】 가르침을 받는 일에는 일정한 승이 없음. 《書, 咸有一德》德無常師, 主善爲師. /晉, 潘岳《歸田賦》敎無常師, 道在則是.

【敎墨 교목】 남의 편지에 대한 경칭. /宋, 蘇軾《答楊濟甫書 1》某近領臘下敎墨, 感服眷厚. /明, 劉基《御名書》六月二十二日剋期回得敎墨, 諭以六月七月間舉兵用事.

【敎門 교문】 ①團 부처의 교법(敎法). 교법은 도(道)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法華經, 賜喻品》以佛教門, 出三界苦. ②종교의 교파. 종문(宗門). /唐, 李華《荊州南泉大雲寺故蘭若和尚碑》或問南北敎門, 豈無差別. ③종교계의 내부. 《宣和遺事, 前集》[徽宗]乃降詔曰, 詔云……今天下歸於正道, 卿等可上表章, 冊朕爲敎主道君皇帝. 止用於敎門. /元, 石子章《竹塢聽琴, 4折》成就了碧桃花下鳳鸞交, 怕甚麼出家兒被敎門中恥笑.

【敎門兒 교문아】 ① 이런 부류의 사람. /元, 關漢卿《金線池, 3折》明知道書生敎門兒負心短命, 盡敎他海角飄

零.

【敎民 교민】 ①백성을 교육함. 《論語, 子路》善人敎民七年, 亦可以卽戎矣. 〈朱熹集注〉敎民者, 教之以孝弟忠信之行, 務農講武之法. ②청말(淸末)에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던 중국인 신자를 이르던 말.

【敎坊 교방】 ①궁중 음악을 관리하던 관서. 아악(雅樂) 이외의 음악과 무용·연희(演戲)에 대한 교습·연습·연출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당(唐) 무덕(武德) 연간 이후 궁궐에 내교방(內敎坊)을 두어 태상(太常)에 예속시켰고, 즉천무후(則天武后) 때에 운소부(雲韶府)로 고쳤다가, 신룡(神龍) 연간에 원래의 이름으로 복구하였다. 개원(開元) 2년(714)에 봉래궁(蓬萊宮) 옆에 내교방, 낙양(洛陽)·장안(長安)에 각각 좌·우 교방을 두었고, 환관(宦官)으로 교방사(敎坊使)를 삼으면서 태상에 예속되지 않았다. 송원(宋元) 시대에도 교방을 두었고, 명대(明代)에는 교방사(敎坊司)를 예부(禮部)에 예속시켰으며, 청(淸) 옹정(雍正) 연간에 폐지하였다. /南唐, 李煜《破陣子詞》最是倉皇辭廟日, 敎坊猶奏別離歌, 垂淚對宮娥. /元, 白樸《梧桐雨, 2折》囑付你仙音院莫怠慢, 道與你敎坊司要迭辦, 把箇太真妃扶在翠盤間. ②기루(妓樓). 기생집. /元, 關漢卿《金線池, 2折》我想這濟南府敎坊中人, 那一個不是我手下敎導過的小妮子. /元, 吳昌齡《東坡夢, 1折》真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丹尊.

【敎坊記 교방기】 당(唐)의 최영흠(崔令欽)이 교방의 조직, 악곡(樂曲)의 연주법, 기녀(妓女)의 일화 등을 기록한 책. 1권. 악곡 3백 24곡의 곡조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四庫提要, 子, 小說家類》·《古今說海 18》·《續百川學海 28》·《古今逸史 12》·《五朝小說 12》·《說郛 78》·《唐人說薈 8》

【敎坊司 교방사】 명청(明清) 시대에 궁중 음악을 관장하던 관서. /淸, 孔尚任《桃花扇, 眠香》你是敎坊司應, 叫俺報名.

【敎法(灤) 교법】 ①법전. 또는 법규. 《周禮, 地官, 鄉大夫》正月之吉, 受敎灤于司徒, 退而頒之于其鄉吏. ②종교의 교리. /宋, 陶穀《清異錄, 僂紅倚翠太師》李煜在國微行娼家, 遇一僧張席, 煙遂爲不速之客, 僧酒令·謳吟·吹彈莫不高了, 見煜明俊醞藉, 氣合相愛重. 煙乘醉大書右壁曰, 淺斟低唱, 僂紅倚翠太師, 鴛鴦寺主, 傳持風流敎法. ③가르치는 방법. /淸, 李漁《風箏誤, 閨哄》怎見得我的敎法, 不如你的敎法, 怎見得你的女兒, 强似我的女兒.

【敎服 교복】 가르쳐서 익숙하게 훈련시킴. 《管子, 地圖》繕器械, 選練土, 爲敎服, 連什伍, 偏知天下, 審御機數, 此兵主之事也. 〈尹知章注〉設敎令使士服習.

【敎本 교본】 ①교화의 근본. /北齊, 顏之推《顏氏家訓, 勉學》禮爲敎本, 敬者身基. /唐, 封演《封氏聞見記, 儒敎》今上登極, 思宏敎本. ②교과서. 교재.

【敎父 교부】 ①가르침과 훈계의 시초. 《老子》強梁者不得其死, 吾將以爲敎父. 〈河上公注〉父, 始也. ②초기 기독교에서 덕망 있는 성직자나 정통 신학자를 일컫던 말.

【敎付 교부】 가르치어 당부함. /唐, 韩愈《魏博節度觀察使沂國公先廟碑銘》乃以敎付厥子.

【敎婦初來 교부초래】 며느리는 갓 시집왔을 때 가르쳐야 함. ⇒敎婦初來敎兒嬰孩. 《朝鮮中宗實錄 28, 12年7月戊戌》敎婦初來, 雖是俚語, 禁於未然, 實爲遠慮.

【敎婦初來敎兒婴孩 교부초래 교아영해】 며느리는 갓 시집왔을 때 가르쳐야 하고, 아이는 젖먹이 때 가르쳐야 함. 교육은 일찌감치 시행해야 함을 이른다. /北齊, 顏之推《顏

氏家訓，教子》俗諺曰，教婦初來，教兒嬰孩。誠哉斯語。

【教匪 교비】백련교(白蓮教)의 난비(亂匪)를 가리키는 말。《國朝先正事略》，那文毅公事略》先是湖北白蓮教匪樊學明叛於襄陽，其黨張漢潮寇秦中，詔參贊大臣明亮討之，而成都將軍慶成，陝西巡撫永保，與明亮有隙，師行不相顧。/清，李惺《忠武楊公神道碑》仁宗時，教匪迭起，大者糾衆至數萬，次亦不下數千，在湖北，則張漢潮·覃家耀·林之華爲尤甚，嘉慶二年，公破之於黃金嶂。

【教士 교사】●훈련을 거친 사병。《管子·小匡》君有此教士三萬人，以橫行於天下。〈尹知章注〉教士，謂先教習之士。《史記·越王勾踐世家》乃發習流二千人，教士四萬人，君子六千人，諸御千人，伐吳。●병사를 훈련함。《禮記·王制》有發則命大司徒，教士以車甲。●기독교 각 파의 교역자에게 대한 통칭。천주교·그리스 정교의 신부와 신교의 목사，특히 선교사(宣教師)를 이르는 말。/清，薛福成《上李伯相論西人傳教書》於是教堂之設，閉境堅拒者有之，率衆攻毀者有之，仇殺教民兼及教士者有之，一夫攘臂，羣口謹呶，官不能禁。回生員(生員· 학생)을 가르침。《兒女英雄傳》，40回》查各省學政本有個教士之責，士習果端，民風自正。

【教事 교사】정치와 교화의 일。《易·坎》君子以常德行，習教事。〈孔穎達疏〉當守德行，而習其政教之事。

【教使 교사】가르치고 타일러서 부림。《禮記·玉藻》燕居告溫溫。〈鄭玄注〉告，謂教使也。 「思無窮。」

【教思 교사】교화하고 사색함。《易·臨》象曰，君子以教

【教唆 교사】남을 부추기어 끝된 일을 하게 함。/宋，朱熹《答呂伯恭書》士人犯法者，教唆把持，其罪不一。/元，佚名氏《賺蒯通》，4折》當初韓信是你教唆他來。

【教師 교사】●가곡(歌曲)·희곡·무술 등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元，張國賓《羅李郎》，3折》人都道你是教師，人都道你是浪子。上長街百十樣風流事，到家中一千場五代史。《金瓶梅詞話》，90回》月娘衆人躉着高阜，把眼觀看，看見人山人海圍着，都看教師走馬要解的。●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교학에 대한 임무를 시행하는 사람。/清，劉獻廷《廣陽雜記 1》永樂取舉人·監生年少者入翰林院，習夷字，以通事爲教師。

【教辭 교사】명령。《書·酒誥》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孫星衍疏〉言汝不用我教令。

【教山 교산】산서성(山西省) 강현(絳縣)의 남동쪽에 있는 산。일명 역산(歷山)。/宋，樂史《太平寰宇記》教山，今名效山，亦名覃山。

【教相 교상】●부처가 일대(一代)에 설한 교법(教法)。또는 각 종파의 교의(教義)。《玄義》，1上》教者，聖人被下之言也，相者，分別同異也。

【教象 교상】교육의 형상。곧 교육의 법칙을 문자로 표현한 조문。《周禮·地官·大司徒》乃縣教象之灋于象魏，使萬民觀教象。〈鄭玄注〉書教法而懸焉。

【敎書 교서】글을 가르침。책을 가르침。《漢書·宣帝紀》以私錢供給敎書。

【敎書匠 교서장】●교사(教師)를 양잡거나 놀려서 일컫는 말。《兒女英雄傳》，37回》從不肯存那通稱本是敎書匠，到處都能僱得來的淺見。

【敎先 교선】송(宋) 정수(鄭洙)의 자(字)。

【敎成 교성】교화의 성과가 있음。《呂氏春秋·義賞》其所以加者義，則忠信親愛之道彰，久彰而愈長，民之安之若性，此之謂敎成。

【敎俗 교속】교화와 풍속。《淮南子·齊俗訓》原人之性，蕪濶而不得清明者，物或壞之也。羌氐僰翟嬰兒，生皆同聲，及其長也，雖重象狄鞮，不能通其言，敎俗殊也。

【敎率 교솔】가르치고 이끌어줌。/宋，曾鞏《勸學詔》至於學官，其能明於敎率，而詳於考察，有得人之稱，則待以信賞。

【敎手 교수】가곡(歌曲)·희곡·무술을 가르쳐 전수하는 예능인。/元，佚名氏《射柳捶丸》，4折》兀那幾個打拳的敎手每，上露臺來耍一會拳，服侍衆位大人每。/清，孔尚任《桃花扇·罵筵》生口不如熟口，清客強似敎手。

【敎受 교수】가르침。/晉，葛洪《抱朴子·金丹》太清觀天經，有九篇，云其上三篇，不可敎受。

【敎首 교수】무예를 가르치는 사범。/明，佚名氏《東平府》，3折》呂敎首，聞你的名，誰敢來賭賽。/明，佚名氏《活拿蕭天佑》，2折》某姓楊名景，字彥郎，父乃金刀敎首楊令公。

【敎授 교수】●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함。학업을 가르침。《史記·仲尼弟子傳》子夏居西河敎授，爲魏文侯師。/唐，薛用弱《集異記·蔣琛》嘗人蔣琛，精熟二經，常敎授於鄉里。

●학관(學宮) 이름。송대(宋代)에 종학(宗學)·율학(律學)·의학(醫學)·무학(武學) 등에 교수를 두어 학업을 전수하게 하였고，각 노(路)의 주(州)와 현(縣)의 학교에도 교수를 두어 학교·과시(科試)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며，관위(官位)는 제독 학사사(提督學事司)의 아래 직위였다。원대(元代) 제로(諸路)의 산부(散府) 및 중주(中州)의 학교와 명청(明清) 시대의 부학(府學)에도 교수를 두었다。/宋，高承《事物紀原》，撫字長民，敎授》宋朝神宗元豐中，興太學三舍，以經術養天下之才，又於諸大郡府，始各置敎授一人，掌敎導諸生。/清，錢泳《履園叢話》，舊舊，仲子敎授》至壬子癸丑，果連捷，中會榜第四，後補寧國府敎授。●글방·서당의 선생에 대한 존칭。《京本通俗小說·西山一窟鬼》吳敎授看那入來的人，不是別人，却是十年前搬去的鄰舍王婆。

【敎授法 교수법】학생을 가르치는 방법。《新唐書·歸崇敬傳》各立五經博士品秩，生徒……敎授法。

【敎師 교수사】●수계자(受戒者)에게 계법을 가르치는 삼사(三師)의 하나。

【敎數 교수】교육하는 방법。《管子·山權數》桓公問於管子曰，請問敎數。〈馬非百新註〉敎數謂敎育之術。

【敎順 교순】●가르치고 깨우침。교도하고 훈계함。順은 訓과 통용。敎馴。《禮記·昏義》敎順成俗，外內和順。國家理治，此之謂盛。《淮南子·修務訓》敎順施續，而知能流通。〈楊樹達證聞〉順讀爲訓。《史記·孝文本紀》今列侯多居長安，邑遠，吏卒給輸費苦，而列侯亦無由敎馴其民。●훈련시켜 길들임。《史記·禮書》故大路之馬，必信至敎順，然後乘之，所以養安也。

【敎馴 교순】●=敎順의 ●。《墨子·兼愛中》昔越王勾踐好士之勇，敎馴其臣，和合之，焚舟失火，試其士。〈孫詒讓閒詁〉馴讀爲訓。《史記·孝文本紀》今列侯多居長安，邑遠，吏卒給輸費苦，而列侯亦無由敎馴其民。●훈련시켜 길들임。《漢書·公孫弘傳》夫虎豹馬牛，禽獸之不可制者也，及其敎馴服習之，至可牽持駕服，唯人之從。

【敎術 교술】교육하는 방법。《清史稿·禮志 8》爾監臣式茲多士，尚其端敎術，正典型，毋卽於華，毋隣於固。

【敎習 교습】●가르쳐 익히게 함。《管子·幼官》器成不守，經不知，敎習不著；發不意。《史記·李斯傳》高受詔敎習胡亥，使學以法事數年矣。/宋，周煥《清波別志》，下》徽宗曰，朕欲敎習書法，告命使能者書之，不愧前代。●과시(課試)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학관(學宮) 이름。명대(明代)에 진사(進士)를 뽑아서 서길사(庶吉士)라는 명칭으로 한림원

(翰林院)에 들여보내 학습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학사(學士)나 이·예부(吏禮部)의 시랑(侍郎)을 교습이라 칭하였다. 청대(清代)에도 만·한(滿漢) 대신(大臣) 각 1인을 교습에 임명하였고, 시강(侍講)·시독(侍讀) 이하 관원을 선발하여 소교습(小敎習)에 임명하였으며, 관학(官學)에도 교습을 두었다. 《儒林外史》 20回《賢契》, 目今朝廷考取敎習, 學生料理, 包管賢契可以取中。 《歷代職官表》, 翰林院, 國朝官制, 《清會典事例》, 翰林院, 教習庶吉士》 ❶선생·교사. /清, 孔尚任《桃花扇·傳歌》在下固始蘇昆生是也, 自出阮衙, 便投妓院, 做這美人的敎習。 /清, 秋瑾《敬告姊妹們》如今女學堂也多了, 女工藝也興了, 但學得科學工藝, 做敎習, 開工廠, 何嘗不可自己養活自己嗎。

【敎乘 교승】 團 불교·불법을 이르는 말. /清, 憲敬《上舉主笠帆先生書》敬自能執筆之後, 求之於馬鄭而去其執……求之於敎乘而去其罔。

【敎示 교시】 가르치고 훈시함. 가르치고 일깨움. /唐, 元稹《哭子詩 5》節量梨栗愁生疾, 教示詩書望早成. /宋, 曾鞏《策問 1》患風俗之敝也, 正己以先百姓, 而明於敎示.

【敎兒嬰孩 교아영해】 아이는 젖먹이 때 가르쳐야 함. ⇒敎婦初來敎兒嬰孩. /北齊, 颜之推《顏氏家訓·敎子》孔子云, 少成若天性, 習慣如自然, 是也。俗諺曰, 教婦初來, 教兒嬰孩, 誠哉斯語。

【敎案 교안】 ❶청말(清末)에 외국 교회가 중국 민중을 위압하여 야기된 소송사건을 이르던 말. 중국 인민이 교회의 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외교 사건을 이른다. /清, 鄒容《革命軍》乃一旦償兵費, 賠敎案, 甚至供玩好·養國蠹者, 皆莫不取之于商人. ❷교사가 수업하기 전에 준비하는 교수(教授) 방안.

【敎約 교약】 가르치고 훈계하여 제약함. 《舊唐書·高駢傳》但守君臣之軌儀, 正上下之名分, 宜遵敎約, 未可驟凌. 《新唐書·于志寧傳》忠孝不兩立, 今太子須人敎約, 卿彊起, 爲我卒輔道之.

【敎養 교양】 ❶가르치어 길러냄. 교육하여 배양함. 《東觀漢記·馬融傳》馬融才高博洽, 爲通儒, 教養諸生, 常有數千. /三國魏, 嵇康《與山巨源絕交書》今但願守陋巷, 教養子孫, 時與親舊敎闈, 陳說平生. ❷문화·품성·도덕에 대한 수양, 또는 사회생활이나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敎語 교언】 =敎言. /宋, 司馬光《論張堯佐除宣徽使狀》天意昭然, 有如敎語.

【敎言 교언】 가르쳐 일깨우는 말. 훈계하는 말. 教語. 《樂府詩集·相和歌辭 12·東門行》今時清廉, 難犯敎言, 君復自愛莫爲非. /明, 李贄《與焦弱侯書》耿子健歸, 承敎言足矣, 乃有許多物, 不大爲寒士費乎.

【敎演 교연】 ❶설명함. 해설함. /明, 湯顯祖《牡丹亭·閨塾》望師父把詩經大意敎演一番. ❷가르치고 훈련함. /清, 俞樾《茶香室三鈔》康熙中以藤牌勝羅刹國》廣陽雜記: 遂召募敎演, 未幾而成.

【敎閱 교열】 교련하고 검열함. 《李衛公問對》上敎閱既成, 衆知吾法. /宋, 范仲淹《奏乞揀選往邊上屯駐兵士》及到邊上, 不堪披帶敎閱, 虛破禁軍諸般受請支賜. /明, 李東陽《夏公行狀》敎閱之法, 以百人爲率, 擇其能者十人, 以敎其九十人.

【敎外別傳 교외별전】 團 ❶선종(禪宗)에서 글이나 말을 쓰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교의(敎義)를 전하는 일. 《正宗紀》其所謂敎外別傳者, 非謂黃卷赤軸間, 言聲字色樅

然之有狀者, 直與實相無相一也, 亦非果別於佛教也, 正其敎迹所不到者也, 吾宋章聖皇帝爲之修心詩曰, 初祖安禪在少林, 不傳經敎但傳心, 後人若悟慎如性, 密印由來妙理深. ❷책 이름. 16권·명(明)·여미(黎眉) 등 엮음.

【敎擾 교요】 훈련시켜 순종하게 함. 《周禮·夏官·服不氏》[服不氏]掌養猛獸而敎擾之. 〈鄭玄注〉擾, 飼也. 敎習使之馴服. 《周禮·夏官·掌畜》掌養鳥而阜蕃敎擾之.

【敎友 교우】 ❶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벗. 《孔子家語·子路初見》孔子曰, 夫人君而無諫則失正, 士而無敎友則失聽. ❷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신도.

【敎勸 교勖】 가르치고 권장함. 교육하고 면려함. 《續資治通鑑》宋真宗大中祥符9年》自今士大夫各務敦修, 更思教勸, 姑念保家之美, 勿貽敗類之羞, 苟掇顯尤, 難從末減.

【敎衛 교위】 훈련을 거친 위사(衛士). 《國語·魯語 下》諸侯有卿無軍, 帥敎衛以贊元侯. 〈韋昭注〉帥其所敎武衛之士, 以佐元侯.

【敎喻 교유】 =敎諭의 ❷. 《禮記·學記》故君子之敎喻也, 道而弗牽, 强而弗抑, 開而弗達.

【敎誘 교유】 가르치고 유도함. /唐, 皇甫曾《贈鑑上人詩》律儀傳敎誘, 僧臘老煙霄. /明, 唐順之《陸慎齋先生壽序》古者, 肄年道藝之士, 尊則爲三老五更, 以爲王侯之師, 下不失爲閭胥族師, 以敎誘化誨其鄉人.

【敎諭 교유】 ❶가르치어 깨닫게 함. 가르치어 이끌. 敎喻. /唐, 張九齡《論敎皇太子狀》若親近細人, 不聞敎諭, 縱欲行善, 猶未知所適. /宋, 司馬光《和韓秉國招范景仁飲》每煩敎諭累百紙, 頗如鐵石不可鐫. ❷학관(學官) 이름. 송대(宋代)에 경사(京師)의 소학(小學)과 무학(武學)에 처음 두었고, 원·명·청(元明清) 시대에는 현학(縣學)에 두어 문묘 제사(文廟祭祀)와 소속된 생원(生員)의 교육을 맡았다. 《明史·職官志》儒學府教授一人, 訓導四人, 州學正一人, 訓導三人, 縣敎諭一人, 訓導二人, 教授·學正·敎諭, 掌敎誨所屬生員, 訓導佐之.

【敎育 교육】 가르치고 길러냄. 또는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름. 《孟子·盡心 上》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 /宋, 佚名氏《儒林公議》今朕建學興善, 以尊士大夫之行, 而更制革弊, 以盡學者之才, 其於敎育之方, 勸亦至矣.

【敎意 교의】 =敎義의 ❷. /隋, 王通《文中子·禮樂》斯人也, 旁行而不流矣, 安知敎意哉.

【敎義 교의】 ❶예교(禮敎: 예법과 도덕)·명교(名敎: 명분과 교화)의 취지(趣旨). 교육의 본지(本旨). 敎意. /南朝梁, 任昉《爲卞彬謝修卞忠貞墓啓》陛下弘宣敎義, 非求效於方今. 《北史·薛辯傳》砥行礪心, 困而彌篤, 服膺敎義, 爰至長成. ❷어떤 한 종교가 신봉하는 의리(義理: 내용과 이치). /南朝梁, 沈約《究竟慈悲論》釋氏之敎義本慈悲. /唐, 法藏《五教章》海印三昧一乘敎義.

【敎肄 교이】 가르쳐 익히게 함. 또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文選·王巾·頭陀寺碑文》既而方廣東被, 敎肄南移. 〈呂延濟注〉敎肄, 謂敎人習法也. 肄, 習也. /宋, 曾鞏《宜黃縣縣學記》夫及良令之時, 而順其慕學發憤之俗, 作爲宮室敎肄之所, 以圖書器用之需, 莫不皆有, 以養其良材之士.

【敎一 교일】 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 교법(敎法)은 오직 성불(成佛)의 한 길만을 가르치는 것임을 이르는 말. 《法華經文句》 4, 上 今言敎一, 圓頓之敎, 名一佛乘, 故序品云, 說大乘經即是敎義也. 自別敎已去, 皆名有餘之說, 卽不了義, 非佛一乘.

【教子 교자】 안씨가훈(顏氏家訓)의 편명(篇名).

【교塌(場) 교장】 ❶군대를 조련하고 검열하던 장소. /唐, 楊巨源《贈鄰家老將詩》拂雪陳師祭, 衝風立教場. 《宋史, 禮志 24》乾道二年十一月, 幸候潮門外大教場, 次幸白石教場. /清, 金人瑞《塞北今朝詩》塞北今朝下教場, 孤兒百萬出長楊. ❷가르치는 곳, 교실.

【教才 교재】 ❶죽여야 할 사람. /朝鮮, 白斗鏞《註解語錄總覽, 水滸誌語錄》教才, 言可殺之人.

【教迪 교적】 가르쳐 일깨움. 교육하고 지도함. /明, 張居正《答翰學黃葵陽書》小兒敬修懋修, 夙承教迪, 茲並捷於南宮, 敢忘所自. /明, 顧起綸《國雅品, 士品 3》博士神清體弱, 雙瞳燭人. 幼精文思, 不由教迪.

【教典 교전】 ❶주관(周官) 태자(太宰) 육전(六典)의 하나. 교육 법규. 《周禮, 天官, 大宰》大宰之職, 掌建邦之六典, 以佐王治邦國……二曰教典, 以安邦國, 以教官府, 以擾萬民. 〈鄭玄注〉教典, 司徒之職, 故立其官, 曰, 使帥其屬, 而掌邦教, 以佐王安擾邦國. ❷종교상의 교의(敎義). ❸圓 경전. /清, 王士禛《池北偶談, 論藝 3, 南來詩》師貫穿教典, 尤以詩名. /清, 梁啓超《廣詩中八賢歌》驅役教典庖丁刀, 何況歐學皮與毛.

【教戰 교전】 ❶전법(戰法)을 가르침. 《六韜, 犬韜, 教戰》武王問太公曰, 合三軍之衆, 欲令士卒服習教戰之道奈何. /宋, 蘇轍《私試進士策問》旦暮教戰. ❷육도(六韜) 견도(犬韜)의 편명(篇名).

【教正 교정】 ❶자기 작품을 남에게 증정할 때 가르치어 바로잡아 달라는 뜻으로 쓰는 상투적인 말. /清, 憲敬《答儼笙尙書書》先生當代大君子, 乃肯垂念愚鄙之夫所不足者而教正之. ❷청대(清代) 주학(州學)의 주임 교관.

【教制 교제】 길들여 금제(禁制)함. 《文選, 稕康, 與山巨源絕交書》見馴育則服從教制.

【教條 교조】 ❶관청이나 서당에서 권유(勸諭)하는 뜻으로 반포한 법령이나 규칙. /唐, 韓愈《許國公神道碑銘》公之爲治, 嚴不爲煩, 止除害本, 不多教條, 與人必信. /宋, 王安石《送吳仲純守儀真詩》久爲漢吏知文法, 當使淮人服教條. ❷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教條示龍場諸生. ❸종교에서 신도들이 지키도록 요구하는 신조(信條).

【教條示龍場諸生 교조시용장제생】 명(明)의 왕수인(王守仁)이 용장에 좌천되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입지(立志)·근학(勤學)·개과(改過)·책선(責善)의 네 가지 규칙을 교시한 일. 《王陽明全書 26》

【教詔 교조】 가르치고 타이름. 또는 그 가르침. 《戰國策, 燕策 1》齊趙, 強國也, 今主君幸教詔之, 合從以安燕, 敬以國從. 《呂氏春秋, 審分》不知乘物而自怙恃, 奪其智能, 多其教詔, 而好自以.

【教卒 교졸】 훈련된 병졸. 《管子, 七法》以教卒·練士擊敵衆百徒, 故十戰十勝, 百戰百勝. 《呂氏春秋, 簡選》驅市人而戰之, 可以勝人之厚祿教卒.

【教宗 교종】 ❶선종(禪宗)에 상대하여 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불도를 터득하려는 종파.

【教主 교주】 ❶어떠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 또는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자. 《方廣大莊嚴經, 轉法輪品》隨應演說法, 教化諸羣生, 能到于彼岸, 故名爲教主. /唐, 秦韜玉《投知已詩》爐中九轉鍊雖成, 教主看時亦自驚. /清, 李漁《比目魚, 入班》我們這位老師, 極是顯靈, 又極是操切, 不像儒釋道的教主, 都有涵養, 不記人的小過. ❷송대(宋代)에 폐위되어 도교(道教)에 입문한 황후(皇后)를 이르는 말. 인종(仁宗)

의 과후(郭后)를 금정교주(金庭教主), 철종(哲宗)의 맹후(孟后)를 화양교주(華陽教主)로 삼았고, 또 휘종(徽宗)은 도교를 독신(篤信)하여 도록원(道錄院)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군황제(道君皇帝)에 책봉하게 하였다. 《老學庵筆記 2》·《宋史, 徽宗紀 3》

【敎主道君 교주도군】 송 휘종(宋徽宗)의 자칭(自稱).

【敎胄 교胄】 ❶가르치어 기름. 가르쳐서 길러냄. 《書, 舜典》帝曰, 瘦. 命汝典樂, 教胄子. 〈孔傳〉胄, 長也. 謂元子以下至卿大夫子弟, 以歌詩蹈之舞之, 教長國子, 中和祗庸孝友. 〈王引之述聞〉敎胄子, 說文引作敎育子……史記五帝本紀作敎稚子……凡未冠者, 通謂之稚子. 稚子卽育子, 故曰, 命汝典樂, 教育子. 西漢經師如夏侯·歐陽必有訓育子爲稚子者, 故史公以稚代育, 蓋有所受之. 育·胄古聲相近, 作胄者假借字耳……馬注曰, 胄, 長也, 教長天下之子弟. 訓胄爲長, 始與史公異義. 然云敎長天下之子弟, 則是以敎胄二字連讀而訓爲敎長. ❷후학(後學)에게 경서(經書)의 뜻을 강해(講解)함. /南朝梁, 蕭統《謝敕參解講啟》將應讓齒, 反降敎胄之恩. ❸국자(國子: 公卿大夫의 자제)를 가르침. /清, 陳康祺《郎潛紀聞 1》耆儒敎胄, 龍種傳經, 古元子入學遺法也.

【敎地 교지】 지리(地利)를 따라 교령(敎令)을 하달함. 《孔子家語, 禮運》命降於社, 之謂敎地. 〈王肅注〉所謂因地之利.

【敎旨 교지】 상사(上司)가 내리는 고유(告諭). /宋, 司馬光《太子太保龐公墓誌銘》[龐公]尋授開封府判官, 尚美人文有寵, 遣宦者稱敎旨, 免工人市蘇. 公上言, 祖宗以來, 未有美人敢稱敎旨干撓府政者.

【敎池 교지】 뜻에서 빨리 건너기 따위를 겨루어 수전(水戰)을 익히는 일. /宋, 高承《事物紀原, 歲時風俗部, 教池》辛氏秦記曰, 昆明池, 漢武帝立之習水戰, 則是敎池之事, 略見於此矣, 亦競渡之遺意也.

【敎指 교지】 가르침. 지도함. /明, 錢德洪《增刻傳習錄跋》蘄之士得遺言, 若親炙夫子之敎指, 見良知, 若重觀日月之光, 惟恐傳習之不博, 而未以重復之爲繁也. /明, 唐順之《萬古齋公傳》是時二子士亨·士和舉進士. 公每遺書必曰, 諸若輩爲好人, 不願若輩爲好官. 士和以翰林吉士出爲禮部主事. 公聞之喜, 以其能不干進, 如敎指也.

【敎職 교직】 ❶주례(周禮) 소재(小宰) 육직(六職)의 하나. 교화(敎化)하는 일을 맡았다. 《周禮, 天官, 小宰》二曰敎職, 以安邦國, 以寧萬民, 以懷賓客. ❷학생을 가르치는 직무. 교원의 직무. 《國朝漢學師承記, 錢大昕》自以不習吏事, 就敎職. ❸학관(學官)·교관(敎官)을 이르는 말. /明, 黃溥《閑中古今錄摘鈔》宣德間, 大父南山先生與慈谿王公來, 俱以敎職同薦入憲臺. /清, 陸以湉《冷廬雜識, 戴益生》知閣下改就敎職, 都中朋輩, 咸謂閣下失計.

【敎調 교침】 아첨하는 것을 가르침. 《漢書, 陳萬年傳》萬年嘗病, 召咸教戒於牀下, 語至夜半, 咸睡, 頭觸屏風, 萬年大怒, 欲杖之……咸叩頭謝曰, 具曉所言, 大要教咸諱也, 萬年迺不復言. 〈顏師古注〉諱, 古諂諂也.

【敎帖 교첩】 공후(公侯)·대신(大臣)이 서면으로 내리는 명령. 《三國演義, 67回》張遼將敎帖與李典·樂進觀之.

【敎招 교초】 가르침. 훈계함. 《敦煌變文集, 父母恩重經講經文》親情勸着何曾聽, 父母敎招似不聞.

【敎忠 교충】 충성의 도리로써 가르침. 《左傳,僖公23年》子之能仕, 父教之忠, 古之制也. /宋, 朱弁《曲洧舊聞 10》覽觀謠俗, 無忘遺愛之厚, 永念敎忠之餘, 皆謂是也. /宋, 黃微《碧溪詩話 8》還將萬億壽, 更謁九重城. 則敎忠之家風舊矣.

【敎忠堂 교충당】 송(宋) 유영지(劉寧止)의 서실(書室) 이름.

【敎治 교치】 가르치어 다스림. 또는 교화함. 《周禮, 地官, 州長》州長各掌其州之敎政政令之灋. 《禮記, 燕義》掌其戒令, 與其敎治. 〈陳澔集說〉敎治, 謂脩德學道也.

【敎敕 교칙】 가르치고 타이름. 또는 가르침과 훈계. 《漢書, 江充傳》非愛車馬, 誠不欲令上聞之, 以敎敕亡素者.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排調》攀龍附鳳, 並登天府. 〈劉孝標注〉張敏集載頭責子羽文曰……於是子羽愀然深念而對曰, 凡所敎敕, 謹聞命矣.

【敎答 교태】 가르치고 타이르며 매질함. 《史記, 律書》故敎答不可廢於家, 刑罰不可捐於國, 誅伐不可偃於天下, 用之有巧拙, 行之有逆順耳.

【敎澤 교택】 교화 또는 교육의 은택(恩澤). 《戰國策, 齊策 6》田單之愛人. 噫, 乃王之敎澤也. /明, 李贊《與焦弱侯書》不知孔子敎澤之遠自然遍及三千七十, 以至萬萬世之同守斯文一脈者, 乃學其講道學, 聚徒衆, 收門生, 以博名高, 圖富貴.

【敎學 교학】 ①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또는 가르치고 기름. 《禮記, 學記》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 古之王者, 建國君民, 教學爲先. 《後漢書, 章帝紀》十一月壬戌, 詔曰, 蓋三代導人, 教學爲本. ②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과정(過程). 《孔子家語, 七十二弟子解》顏由, 顏回父, 字季路. 孔子始教學於闕里而受學, 少孔子六歲. 《東觀漢記, 鄧禹傳》〔鄧禹〕篤於經書, 教學子孫. ③스승과 어른을 이르는 말. 《禮記, 玉藻》凡祭不諱, 廟中不諱, 教學臨文不諱. 〈孔穎達疏〉教學, 爲師長也.

【敎學相長 교학상장】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진보함. 《禮記, 學記》是故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 知不足, 然後能自反也, 知困, 然後能自強也. 故曰敎學相長也.

【敎行證 교행증】 ④부처의 교법에 따라 수행하여 얻는 깨달음의 결과. 《翻譯名義集, 法寶衆名篇, 達摩》青龍疏云, 有敎行證, 名爲正法.

【敎刑 교형】 학교에서 가하던 체벌(體罰). ⇒夏楚의 ⑤. 《書, 堯典》扑作敎刑. 〈孔傳〉扑, 榻楚也, 不勤道業則撻之. 〈蔡沈集傳〉扑作敎刑者, 夏楚二物, 學校之刑也.

【敎亨 교행】 금(金)의 고승(高僧). 속성은 왕씨(王氏). 자는 허명(虛明). 연경(燕京)의 경수사(慶壽寺)에 머물다가 흥정(興定) 연간에 임직하였다. 《大明高僧傳 5》

【敎護 교호】 가르치고 보호함. 관리함. 《管子, 形勢解》治安百姓, 主之則也, 教護家事, 父母之則也.

【敎化 교화】 ⑥정치와 교육으로 풍속을 감화시킴. 《詩, 周南, 關雎序》美敎化, 移風俗. /漢, 桓寬《鹽鐵論, 授時》是以王者設庠序, 明敎化, 以防道其民. ⑦가르치어 감화시킴. 교육하여 감화함. 《禮記, 經解》故禮之敎化也微, 其止邪也於未形. /唐, 玄奘《大唐西域記, 懷賞彌國》世尊曰, 教化勞耶. 開導末世, 實此爲冀. ⑧환경의 영향을 비유하는 말. 《史記, 三王世家》傳曰, 蓬生麻中, 不扶自直, 白沙在泥中, 與之皆黑者, 土地敎化使之然也. ⑨구걸함. 비력질함. 《敦煌變文集, 維摩詰經講經文》有心憑机以呻吟, 無力丈梨而敎化. /元, 鄭廷玉《看錢奴, 3折》大清早起, 利市也不曾發, 這兩個老的就來敎化酒喫, 被我支他對門討藥去了. ⑩=敎化頭. /宋, 佚名氏《張協狀元, 戲文, 39齣》敎化歸鄉爲沒錢. /明, 高明《琵琶記, 祝髮賣葬》雖然這頭髮值錢不多, 也只把他做些意見兒, 怪似敎化一般.

【敎化頭 교화두】 ⑪거지. 비렁뱅이. 敎化. /元, 李行道《灰闌記, 1折》呀, 怎麼我家解典庫門首立着個敎化頭. 《水滸傳, 49回》毛太公道, 我家比你家, 各有內外, 你看這兩箇敎化頭倒來無禮.

【敎化三部 교화삼부】 운남성(雲南省) 문산현(文山縣)에 있는 토사(土司). 명대(明代)에 장관사(長官司)를 두었고, 삼부는 교화(敎化)·강현(強現)·아거(牙車)이다. 《讀史方輿紀要, 雲南, 臨安府》

【敎化地 교화지】 ⑫수행을 성취한 보살이 자오(自娛)하는 경지. 《往生論注, 下》修行成就已, 當至敎化地, 敎化地, 卽是菩薩自娛樂地.

【敎化之宮 교화지궁】 학교. /宋, 葉廷珪《海錄碎事, 文學, 序》五經通義曰, 三王敎化之宮, 總名爲學.

【敎會 교회】 기독교 각파의 조직 형태. 한 구역, 한 교당을 이르기도 한다. /清, 容閔《西學東漸記, 16章》宜禁止敎會干涉人民詞訟, 以防外力之侵入.

【敎誨 교회】 가르치어 지도함. 가르치어 일깨움. 《書, 無逸》古之人, 猶胥訓告, 胥保惠, 胥教誨. 《詩, 小雅, 小宛》敎誨爾子, 式穀似之. /唐, 劉長卿《別李氏女子詩》臨歧方敎誨, 所貴和六姻.

【敎孝 교효】 ⑬효도를 가르침. 《禮記, 祭義》祀乎明堂, 所以敎諸侯之孝也.

【敎訓 교훈】 ⑭가르치고 훈련시킴. 《左傳, 哀公元年》越十年生聚, 而十年敎訓, 二十年之外, 吳其爲沼乎. /唐, 元稹《唐故南陽郡王贈某官碑文銘》潤之師故南陽韓晉公之所敎訓, 弩勁劍利, 號爲難當. ⑮지도하고 훈계함. 《左傳, 文公18年》顙頷有不才子, 不可敎訓. /唐, 元稹《唐故建州浦城縣尉元君墓誌銘》君卽某官之次子也. 少孤, 母曰渤海封夫人, 提捧敎訓, 不十四五, 其心卓然. ⑯학식과 품행, 문화에 대한 지식. 《玉臺新詠, 古詩, 爲焦仲卿妻作》本自無敎訓, 兼愧貴家子. /唐, 蔣防《霍小玉傳》某有一女子, 雖拙敎訓, 顏色不至醜陋, 得配君子, 頗爲相宜. ⑰실패하거나 실수하고 난 후에 얻는 경험, 또는 지식.

7 教

敎의 속자. 《正字通, 支部》敎, 俗作教.

7 救	金 文	𦥵 小 篆
周 宅 匣	說文·支部	

曰 구宥 ⑧《廣韻》居祐切 jiù

曰 구尤 ⑨《集韻》居尤切 jiū

《說文, 支部》救, 止也. 从支, 求聲.

⑩=저지하다. 제지하다. 뭇하게 하다. 《集韻, 虞韻》救, 禁也. 周官有司救: 《周禮, 地官, 司救》司救掌萬民之衰惡過失, 而誅讓之, 以禮防禁而救之. 《論語, 八佾》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 〈何晏集解〉救, 猶止也. 《晉書, 刑法志》原先王之造刑也……所以救姦, 所以當罪. ⑪원조하다. 구호하다. 재난·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다. 《詩, 邶風, 谷風》凡民有喪, 復匍救之. 《漢書, 鮑宣傳》博士弟子濟南王咸舉幡太學下, 曰, 欲救鮑司隸者會此下. ⑫구원하는 군사. 원병(援兵). 《墨子, 號令》凡守城者, 以亟傷敵爲上, 其延日持久, 以